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김도훈 라파엘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어요

하는 거 없이 야속하게 나이만 먹어가는 것 같아 부끄럽기 그지없는 가운데, 임인년 새해는 허락도 없이 야속하게 시작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 처절하게 버티어낸 코로나 시국 2년 동안, 숨 쉬는 것 만으로도 버거웠는데, 이 망할 놈의 역병은 그 기세가 줄기는커녕, 세를 더 키워나가니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불안함을 한가득 안고 임인년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굳게 버티어주셨고 또 버티어주고 계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도 새날, 새로움이라는 기회와 선물이 왔으니 없던 힘이라도 내서 새것을 희망하고 다시 또 힘을 얻어 모든 것을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품기를 기도합니다. 전례 없던 국가 위기로 많은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2년간 교정시설 출입이 제한되었고 단절되었으며 패턴은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졌고 사라졌으며 새로 만들고 새로 시작할 시기가 왔습니다. 모든 다시 시작할 때는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하듯, 기본과 본질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운동도 오랜만에 혹은 새로이 시작할 때, 기본기를 철저히 훈련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기술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도, 세상도, 우리의 삶도 기본,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임인년을 살아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올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복음삼덕의 기본을 잊지 말고 더 순순히 믿고 열렬히 희망하고 정성스럽게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 중입니다.

2021년을 성찰하자면 하느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재물을 하느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지는 않았습다. 성령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고집과 아집, 온갖 표리부동에 집착하여 성령이 주시는 변화를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하늘나라를 희망하며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방에는 세속적 욕망과 탐욕의 상징들만 쌓여갑니다. 그분의 오심을 희망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세상만사에 대한 집착과 욕심은 아직은 오지 마시라고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하느님과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사랑하기 급급하고 내 것을 챙기기에 급급하며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이 저를 온전히 지배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투성이지만, 올해는 기본에 충실하게 진솔하고 마음 다해 믿고 희망하고 사랑해보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꿈꾸는 목표와 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 기본적인 것들을 정성스럽게 살다 보면 어느 사이, 삶의 코어에 힘이 생기고 수많은 장애물도 거뜬히 넘을 수 있을 겁니다.

신부로서 할 수 있는 새해 선물은 이 글을 읽는 모든 분과 그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빌어주는 것뿐입니다. 진심으로 새해의 복을 빌어봅니다. 지난해도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찾아온 새해도 정성스럽게 만나고 시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선하신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탐스러운 결실로 이어지는 임인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11월 25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주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가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되었습니다. 특별히, 수용자와 출소자를 기억하는 미사에서 김도훈 라파엘 부위원장 신부는 “죄에 앞서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분들이고 언제나 회개를 준비하며 하느님께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라며 “여기 함께 모인 교우 여러분들 또한 수용자들에게 대한 무차별적 분노와 화, 그리고 그 가족에게까지 감당하기 힘든 죄를 씌우는 일들, 출소한 이들에 대한 끝없는 학대와 차별, 색안경 등은 벗어 주시고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하느님 나라 안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웃으며 하느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되길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감옥에 갇힌 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브 10,34)의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소외된 이들 중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범죄방지재단상 시상식



11월 26일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선정되어 상금 1,000만 원과 함께 실천공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현대일 위원장 신부는 “수용자들과 그 가족, 출소자와 범죄 피해자들 모두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에, 그래서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해주자고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으름가는 범죄의 방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라며 “이 상의 영광과 기쁨을 열정적으로 봉사해주신 봉사자분들, 그리고 함께 사랑을 실천하신 수많은 후원회원분께 돌립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쁨과희망은행 창업자금 면접 심사 및 운영위원회의



12월 6일 기쁨과희망은행 창업자금 면접 심사와 운영위원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신부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과희망은행의 대출채권 대손상각 건 및 2022년 운영위원 워크숍 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항상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기쁨과희망은행을 위해 봉사해주시는 운영위원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주님과 대화해 보세요

박지희 크리스티나_서울남부구치소 남사 봉사자

제가 처음으로 구치소 미사에 참여하게 되었던 건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본당 신부님께서 구치소에서 미사 집전을 하게 되어 저와 청년회장님과 함께 미사 참여를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미사에 참여하실 분들에게 드릴 빵을 직접 만들고, 자비의 기도문과 편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날, 기도 손을 하며 미사에 참여하시는 수용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쩌면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곳이 이곳이겠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며칠 후 성당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하였는데 그날 미사에 참여하셨던 분 중 한 분께서 저희가 드린 편지에 대한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날 미사 드리게 되어 너무 좋았고, 빵도 잘 먹고, 편지도 잘 읽고, 앞으로 성경도 잘 읽으며 기도도 하시겠다고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세 장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눈물이 흘러 편지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써주신 편지에 그분의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서이기도 했고, 저희의 마음이 전달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선교의 꿈을 안고 있었기에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계속되는 마음의 울림을 주었고 언젠가는 꼭 수용되어 계신 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 교육도 받고 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일이기에 마치 꿈을 이룬 것 같은 기쁨이 있었고, 일을 잘 해내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봉사하면서 무언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고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힘이 들 때 기도합니다. 마음속의 속상함, 괴

로움, 아픔 모두를 주님께 털어놓습니다. 특별한 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앉아서 마음속의 이야기를 다 꺼내놓습니다. 그렇게 한껏 다 털어내고 울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지고 위로를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저는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속에서 새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이렇게 기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겠지만, 나의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생각으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주님께 들려드리다면, 그 시간을 통해 주님과 나와의 친밀감을 쌓아가면서 마음속의 따뜻한 위로를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마음의 변화 또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과 함께 미사를 드리던 때가 그립습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다시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면, 예전처럼 성가도 부르고, 신앙에 대한 교리를 배우는 시간도 갖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도 갖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새 태양이 떠오르듯, 우리 자신도 하루하루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희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며 다음 만남을 기다리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과 봉사자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창세기 28:15)



미르얌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미르얌’은 히브리어로 ‘쏟은 물’, ‘짼 물’, ‘바다’를 뜻합니다. 희랍어로 번역되면서 ‘마리아’로 쓰이게 됩니다. 이집트어에서 어원을 따지게 되면, ‘사랑받는 이’라는 의미도 있고 학자들에 따라서 ‘신의 선물’, ‘신의 사랑받는 이’, ‘신에 의해 높여진 이’라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미르얌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입니다(탈출 15,20; 민수 26,59; 1역대5,29). 다른 누이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파라오의 딸이 물에서 모세를 건져 입양(탈출 2,1-10)되도록 역할을 하는 그 누이가 미르얌일 것입니다. 영특함과 순간적 재치가 뛰어났던 미르얌은 이집트 탈출 사건에 있어서 모세, 아론과 더불어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미카 6,4). 미르얌은 예언자로 지칭이 됩니다(탈출 15,20). 하느님의 중요한 업적을 보고 노래하며 춤추면서 찬미하고, 다른 사람들 역시 함께 그 찬미로 이끌었습니다. 자연의 신비 속에 숨어있는 하느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하고, 찬미하며 다른 사람들까지 이끄는 것이 그 예언자의 직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특하며 뛰어난 예언자이기도 한 미르얌은 모세를 시기하고 비방하였습니다.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미르얌과 아론은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그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민수 12,1-2)

모세의 이방인 아내로 인한 지적으로 생각되지만, 비난의 말이 “왜 율법을 따르지 않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으로 보아, 하느님이 모세에게만 중요한 소통을 하고 이로 인해 모세에게 집중되어있는 권력을 시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 역시 이방인 아내와 결혼해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에게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민수 12,6-8) 하십니다.

미르얌은 ‘별’을 받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민수 12,10) 되어 있었으며 ‘살이 반은 뭉그러’(민수 12,12)져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나병에 걸린 듯싶습니다. 병에 걸린 것을

하느님의 벌이라고 생각한 점이 아쉽고, 또한 이로 인해 유다교 전통을 가진 문화권에서 병에 대한 인식과 병자에 대한 인식이 곡해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이곳에서는 교정의 한 부분, ‘벌’의 올바른 측면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미르얌의 죄, 이런 최상의 계층의 권력에 대한 질투나 시샘은 보통 분파를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공동체가 갈라지게 됩니다. 오누이간 갈등이었기에 쉽게 봉합되지 않았겠느냐 생각하겠지만, 역사를 통해서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누이가 갈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또 백성들도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과 미르얌이나 아론을 따르는 사람으로 공동체가 갈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르얌이 벌을 받게 되자, 공범인 아론은 모세를 향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청합니다. 공범인 아론은 왜 벌을 받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마음속으로만 동조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미르얌의 벌을 지켜보는 아론의 마음은 무거웠고, 이것이 아론에게 주어진 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나의 주인님,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여 저지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미르얌을, 살이 반은 몽그러진 채 모태에서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놓아두지 말아 주십시오.”(민수 12,11-12) 모세 역시 하느님께 청합니다. “하느님, 제발 미르얌을 고쳐 주십시오.”(민수 12,13) 갈등이 봉합됩니다. 여기서 벌은 그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모세의 청을 듣고 곧바로 미르얌을 낮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레 동안 진영 밖에 격리’를 하게 합니다. 장소를 떨어트리고 시간을 두어서 서로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합니다. 단순히 서로 간의 마음의 앙금만 사라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격리되었던 동안 백성은 미르얌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립니다(민수 12,15). 벌로 인해서 갈등의 당사자들이 서로를 위해주며, 공동체도 한마음이 됩니다. 진정한 벌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는 당사자인 미르얌이 등장하지 않아 그의 마음이나 행동의 변화를 알 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과 무덤의 장소를 기록해두었습니다(민수 20,1). 일반적으로 성경은 큰 인물의 죽음과 무덤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이 일 이후 조용히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듯합니다.

벌이나 제재가 단순히 악한 행동에 대한 응보(應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죄와 벌을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가 잘못을 저지른 개인 한 명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모세가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부탁드리듯, 우리 공동체 전체의 잘못은 없는지 반성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이러한 벌을 통해서 가해자만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도 치유되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모든 죄의 제재가 일괄적으로 가두고 격리가 아니라, 보다 효과적으로 서로의 갈등을 치유하고 공동체가 기꺼이 하나 되어 가해자나 피해자를 기다리고 위로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룩과 같은 기쁨과희망은행

김성일 에라스토 /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마태 13,33)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전지구적 변화의 과정을 증진하기 위한 뜻에 따라 매년 ‘프란치스코의 경제(The ECONOMY of FRANCESCO, EoF)’ 국제 대회가 개최된다.

이탈리아 아시시(Assisi)에서 2020년에 열린, 전 세계 115개국의 젊은 경제인 및 기업가들이 참석한 대회에서 교황님께서 “누룩이 되기 위해 반죽하는 것을 간섭하고 방해하는 빠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누룩이 되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누룩이 되기 위해서는) 소매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반죽해야 합니다.”라는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감옥에 있는 ‘조반니’라는 사람의 편지와 미국의 여성 출소자의 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젝트-리아(Project Lia)’가 소개되었다.

이중 <프로젝트 리아>는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의 사회적 기업으로, 출소 여성을 대상으로 버려진 재료를 아름답고 독특한 가구와 액세서리로 재활용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재범률을 퇴치하고 과거 수감된 여성들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들에게는 안정적 일자리, 마약 없는 안전한 주거 환경과 함께 가족과의 유대도 필요하다. 하지만 출소자들이 다시 사회에 재통합이 중요함에도, 대부분 출소자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프로젝트 리아>는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나서 인종이나 성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고 사회 일원으로서 재통합을 목표로 여성들에게 자신의 가치 재발견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룹으로써 사회의 소중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종·문화·종교 그리고 사회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 간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도와준다. 또한 출소 여성들을 위해서 경제·사회·문화적 정착에 필요한 교육도 하고 있다.

이날 교황님께서서는 가난한 이를 먼저 생각하는 경제활동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도시 안에서 방황하는 이들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혼자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하셨다.

예수님의 누룩 비유 말씀을 묵상하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전달하여 주시는 메시지의 지향에 따라 이 세상의 누룩이 되어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을 향해 실천하는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와 기쁨과희망은행의 구성원임을 겸손되이 감사드린다.

김도훈 라파엘 신부님께.

이곳 낮은 곳에서는 가장 길고 긴 계절인 6개월 정도 겪어내야 할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까지 모기를 잡느라 매일 소동을 벌였는데 어느새 모두가
숙내의를 꺼입고 시디시킨 병풍을 이겨내는 모습들이 너무 애처로워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 오히려 낯깻다는 서러운 생각도 듭니다.

갑자기 추워진 기온 속에서 신부님의 무탈과 강건함을 비웁니다.
정성으로, 고맙게 보내주신 금원을 지난 10월 1일(목)에 받았습니다.
감사히 받은 금원을 필요약의 구입에 모진하게, 잘 쓰겠습니다.

아무리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반복되는 고난은 은혜가 당연한
편리라고 착각함과 고난함이 없도록 명심하고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받은 즉시 편지드려야 도리이오나 심한 몸살 감기로 여러날을 아주
심하게 앓아누워서 이제사 서신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베껴어주신 은혜를 오래오래 잊지 않겠아오며 저역시 자유인이
되면 저보다 힘든 자들을 도우며 기꺼이 온정의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또한 조롱하고 차별하게, 매우 겸손한 마음으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실현가능한 일을 같이 생각하며 지내파자 합니다.

종으신 주님의 사랑과 가호가 언제나 신부님과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오며 전장 속에서 평안하시길 기도드리오며 부족한 난필을 아한
뱃습니다. 신부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2021. 10. 18.

가장 낮은 자 올림.

2022년 2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 2월 7일(월)
- ▶ 2월 14일(월)
- ▶ 2월 21일(월)
- ▶ 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 / 중서울 길음동성당
- / 동서울 광장동성당
- / 서울 양천 성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

♥ 부산교구 양산 성모올타리

출소자들의 자립을 돕는 공동체 성모올타리는
일반 기술자와 출소자들이 함께
우리밀 100%로 빵을 만듭니다.
인터넷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검색: 이레우리밀)

※ 구입문의 : 055)367-2232 / 3만원 이상 주문 시 택배비 무료

※ 농협 351-0425-2610-23 (이레우리밀)

신한 140-012-398858 (이레우리밀)

- ▶ 수제청국장식빵 ₩5,000
- ▶ 수제상투과자 ₩5,000
- ▶ 수제단팥빵 3개 ₩5,000
- ▶ 수제통밀식빵 ₩5,000
- ▶ 수제엄마빵 5개 ₩10,000
- ▶ 수제소보루빵 3개 ₩5,000
- ▶ 우리밀호두과자 30개 ₩10,000
- ▶ 엄마찰보리빵 20개 ₩10,000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11/18~12/14)

2021년 11월~12월에는 이강숙 안나, 신정미 스텔라, 조혜성 사도요한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